



불기 2548년 5월은 부처님 오신 달

“우리도 부처님 같이” Buddha's Birthday



불광산사의 성운 스님.

‘인간정토 구현’ 나선 타이완

타이완 불교는 사회와 가깝다. 작게는 사람들의 식생활에서부터 크게는 사회 전반적인 사업에도 불교의 자비와 사랑, 그에 따른 그들의 저력이 여실히 드러난다. ‘인간정토의 구현’, 이 말은 어쩌면 타이완 불교를 설명하는 가장 좋은 주석이 되지 않을까 싶다. 타이완 불교단체들이 부처님의 자(慈) 비(悲) 희(喜) 사(捨) 정신을 사회에 어떻게 실천하고 있을까. 타이완의 불교 사업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자선 △의뢰 △교육 △문화 분야로 구분해 설명할 수 있다.



중대선사의 유각 스님.

생활 속에 꽃 핀 신행 일본

요람에서 무덤까지 자연스럽게...

한국이나 중국을 통하여 전래된 일본불교는 이제 일본문화의 정체성을 규정할 정도로 일본인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활짝 꽃을 피우고 있다. 길 옆이나, 공원, 심지어는 빌딩의 옥상층까지 지장보살상이 모셔져 있고, 약 90%의 일본인 가정집에 불상을 모신 작은 불단을 가지고 있을 만큼 불교가 다양한 모습으로 생활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

이 때문에 일본을 연구하는 많은 서구인들이 좌선, 다도, 꽃꽂이 등의 불교문화를 통해 일본문화를 바라보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불교학 수준은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기에 이르렀으며, 불교를 배우기 위해 한국은 물론 여러 나라에서 일본을 찾는 유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일본불교가 일본문화의 기초를 이루고 생활 속에서 불교문화를 꽃피우게 된 데에는 곳곳에 자리잡고 있는 많은 사찰과 불교단체, 그리고 재가 불자들의 일상생활에 밀착된 불교문화산업에 빼놓을 수 없다.

대표적인 예로 동경의 (사)재가불교협회의 활동을 살펴보자. 재가불교협회는 불교에 삶의 근원과 목적을 둔 재가 불자들이 특정한 종파나 교의를 떠나 불교를 배우고 실천하는 모인인 재가불교협회의 주요사업은 불교전문 월간지 발행, 불교 대강연회 개최, 국내의 사찰순례, 정기 참선 등을 개최하고 있다.

재가불자들이 중심이 되어 이와 같은 불교문화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단체는 재가불교협회 외에도 불교전도협회, 선문

화연구회, 불교문화연구회, 불교정보센터(스님의 의한 전화 카운슬링) 등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단체가 종파를 초월해서 불교를 전파하고 있다. 사찰의 경우도 불교 대중화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은 마찬가지다. 일본불교의 대표적 사찰 중의 하나인 교토의 지엔원(知恩院)이 직영하는 시설을 살펴보자. 먼저 숙박 및 연수시설인 화순회관(和順會館)을 들 수 있는데, 회관 내에는 다목적 홀, 직업 매점과 레스토랑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또 이 사찰에서는 입산부를 비롯한 만 3세까지의 유아와 부모를 대상으로 주 3회에 걸쳐 ‘부모와 자녀 교실’을 열고 있다. 주로 스님들의 법문, 체조, 육아정보를 교환하는 티타임 등으로 이뤄진다. 이 외에도 바이올린 연주회, 방생회(放生會), 육아 교육, 과자 교실, 구급법 등의 특별행사나 염불, 좌선 등을 하는 내용으로 2박 3일의 불교수련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여 불교적 정서교육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가정집 90%

불단 모시고 예불

불교학 수준

‘세계최고’ 자타 공인

이러한 일본불교는 한마디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함께 하는 생활불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이가 태어나 삼칠일이 되면 절에 데리고 가서 참배를 시키고 죽으면 반드시 절에서 장례식을 치른다. 특히 불교가 일상에 녹아 있다는 사실은 일본 스님들의 일과 중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인 가정방문법회를 통해서 잘 나타난다. 일본의 스님들은 정해진 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신도의 집을 방문한다. 스님들은 불단을 향해 앉은 채로 각 종파의 소의경전이나 조사어록을 독송하고 난 뒤 신도를 상대로 법문을 한다. 일본의 생활불교는 이미 노명화 사회로 접어들어 사회 속에서 더욱 친밀감을 얻고 있다. 가정법회를 위해 방문한 스님은 홀로 집을 지키고 있는 노인들의 수다를 들어줌으로써 신도들과 끈끈한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장영식(일본 동양대 철학과 박사후 과정)



일본의 부처님오신날 행사는 일상생활의 연장선상에서 ‘꽃축제’로 진행. 많은 일반인들이 동참한다.

생활화된 자선 ... “온 인류 행복할 때까지”

성운 · 증엄 · 유각 · 성엄 스님 자비희사의 사회적 실천 견인

대부분의 인구가 불교 및 민간 신앙을 믿고 있는 타이완 불교를 이끄는 단체들은 크게 네 곳을 들 수 있다. 성운(星雲) 스님이 이끄는 타이완 남부의 불광산사(佛光山寺), 증엄(證嚴) 스님이 지도하는 중부 화리엔(花蓮) 지역의 자제공덕회(慈濟功德會), 유각(惟覺) 스님의 중대선사(中台禪寺), 성엄 스님이 이끄는 타이베이 지역의 법고산농선사(法鼓山農禪寺) 등이 그것이다. 이 단체들은 산하에 문화, 교육, 복지 등 각 분야의 조직들을 운영하면서 불교의 사회화, 봉사 및 생산 불교를 실천하고 있다.

사회의 소외된 계층이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구조하고 보살피는 자선 사업은 사회 각계 인사들의 기부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때문에 모든 기부금은 금액과 상관없이 영수증을 발행하며, 그 사용내역의 공개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 불교계의 자선 기관은 주로 심신장애자나 저소득층의 구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증엄 스님의 자제공덕회, 불광산의 자비기금회, 법고산의 법고산불기금회와 재단법인 법고산사회복지자선사업기금회 등이 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자선 사업 단체가 바로 자제공덕회인데, 이 단체는 세계적인 불교 자선 단체이다. 특히 자제공덕회는 의료사업 분야에서의 활동과 업적이 가장 활발하다. 증엄 스님의 ‘아픔의 소리를 들으면 그 고통을 구제한다(聞聲救苦)’라는 의지 아래 1986년 정식으로 화리엔 자제의원(타이완 동부 지역에서는 유일한 종합 병원)을 개원했다. 그 뒤를 이어 중남부 자이이(嘉義)의 따린(大林) 자제의원, 타이베이의 신평(新莊) 자제의원 등을 건립했으며, 최근 타이완내에서 골수 기증 운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자제공덕회는 국내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무료 진료를 실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남가주, 뉴욕, 하와이, 아시아 지역의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및 중국, 브라질 등지에서도 의료 봉사팀 및 진료소를 세우는 등 그 활동이 매우 왕성하다. 작년에는 필리핀의 쌍둥이 어린이 분리 수술에 성공, 세계를 놀라게 했다.

“인재 양성에 미래 달렸다” 인문 · 문학 · 학술계 지원

타이완 불교계는 인문 문화 학술계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다. 예를 들면, 중대선사의 재단법인 중대문기금회와 재단법인 중대산불기금회는 1991년과 1996년 12월에 각각 설립되어 전자는 불학 세미나, 서적 출간 등 학술 활동을 지원하고, 후자는 사회 공익 사

업에 대한 지원을 주요 업무로 삼고 있다. 성엄 스님이 이끄는 법고산도 1992년 7월 14일 법고산문기금회를 정식 발족하여, 사회공익사업과 불교학술 문화의 추진을 보조했던 것을 시작으로, 2000년 1월에는 법고산인문사회조학술기금회를 설립하여, 인문사회 관련 학술 연구 및 인재 양성을 지원했다. 1998년 7월에 설립된 재단법인 법고산대문기금회는 2000년에 정식으로 법고산에 위임 되어, 문화교육, 학술연구 등 대중의 정신 건강에 도움을 주는 교육 문화 공익 사업의 추진을 보조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회 문화의 질적 개선에 동참하고 있다.

타이완 불교계는 부처님의 자비를 널리 알리고 계승하기 위해 인재 양성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모든 타이완의 도량들은 각각 수행사, 신도 그리고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을 벌이는 등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예를 들면, 전문적인 승가 교육 기관으로는, 불광산의 남중불학원(南衆佛學院), 여중불학원(女衆佛



타이완 불교는 자급자족하는 생산불교를 지향한다. 사진은 자제공덕회의 초공장에서 운영하는 스님들.

學院) 등이 있다. 법고산은 승가대학(2001년에 설립)과 법고산중화불학연구소가 있는데, 이 대학원은 1985년에 설립된 타이완 유일의 불학 연구소이다. 중대선사에도 중대불학원이 있는데, 이 곳은 각각 대학원(3년과정), 실습과 논문을 통해 석사 학위 수여와 학부(고등부 3년, 대학부 2년, 불학의 기초 학습 교육 기관)의 두 부문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일반인들을 위한 사회 교육 시설로는 불광산의 보문중학, 남화대학, 불광대학과 서래대학 등이 있으며, 법고산은 현재 법고대학을 설립 예정 중에 있다. 자제기금회 또한 4년제의 자제대학, 전문대 형식의 자제기술학원, 자제고등학교, 자제초등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어 완전 교육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또한 자제공덕회에서는 4월 초, 중국어 랭귀지 스쿨을 개설하여 중국어를 외국어 보급시킴과 동시에, 중국 문화와 불교사상을 널리 전할 계획이다. 중대선사도 보대중학교와 보대초등학교의 설립을 추진 중이다.

대중매체 포교에 적극 활용 바른 불교문화 정착 이끌어

이처럼 사회가 안정되고, 가난과 질병이 사라지고, 개인의 교육적 수준이 한결 높아졌다 해도 인간 정토가 실현 되었다고 안심하기는 아직 이르다. 올바른 불교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야말로, 궁극적인 인간 정토를 실현하는 지름길일 것이다. 타이완의 불교 단체들은 동시에 대량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각종 매스미디어를 심본 활용해 불교 문화의 정착에 노력하고 있다.

가장 대중적인 매체인 불교 방송국의 운영은 타이완 불교 문화 사업에서는 빼 놓을 수 없는 분야다. 타이완의 불교 케이블TV에는 유명한 불광산의 인간위시(人間衛視)와 자제정사의 대애(大愛) 방송국이 있다. 두 방송국은 기존의 불법 강연이나 교리 교육의 프로그램의 예, 연속극을 제작 방영하며 예술 공연 등을 방송하는 등, 다른 케이블 채널들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사회와 호흡할 수 있도록 소재나 편집 면에서 다양성을 꾀하고 있다.

그 예로, 대애방송국에서는 몇년 전 타이완에서 한국 드라마의 붐이 아직 일기 전에, 이미 한국의 ‘육남매’를 들여와 적지 않은 사회의 반향을 불러 일으키며 오랫동안 관심과 사랑을 받았다. 또한 지난 몇 년동안 대애방송국이 제작한 드라마는 연말 TV드라마 시상식에서 연속으로 우수 드라마 제작상과 배우 연기상을 받는 등 주류 방송국 못지않은 활약을 보였다.

또한 적극적인 인터넷의 활용도 불교문화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각 불교 단체들은 웹사이트를 제작하여 무료 인터넷 신문(불광산의 ‘人間聞報’, 법고산의 ‘法鼓’)을 운영하는 것은 물론 각 불교 단체의 사업이나 활동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는데, 영어나 스페인어 버전으로도 제공되어, 전세계 신도들이 수시로 불교를 접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그 밖에, 불교 서적이나 음반을 판매하는 인터넷 서점(불광산의 ‘如是我聞’과 ‘香海文化’)이라든지, 케이블 방송의 실시간 인터넷 방송 등은 불교의 보급화와 현대화에 큰 몫을 하고 있다.

민중과 아픔 나누기 세계적 네트워크 구축

중국 불교와는 달리 타이완 불교는 불교 단체의 다각적인 봉사와 불교 사업으로 인해 민간 생활종교로 정착되었으며, 민중들과 교락을 함께하며 타이완의 대표적 인종교로서 성장 발전하였다. 그리하여 오늘날에는 비단 타이완 뿐만 아니라 이웃 아시아 지역과 서구 유럽 등 각지에 분회를 설립하여 세계적인 불교조직으로 성장, 보다 전면적이고 체계적인 생산불교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이들 불교 단체의 자선, 의료, 복지 등의 사업은 국내 사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조직적인 연 락 체계를 통한 전세계적인 구제 복지 사업 단체로서 탈바꿈하고 있다.

불교가 자연스레 생활 곳곳에 들어오는 타이완. 인간 정토를 실현하고자 몸소 실천하는 타이완 불교 단체들, 물론 불교의 사회적 책임도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오늘날의 불안한 정치 현실로 인해, 분열되는 사회 민심을 가다듬기 위해서라도 타이완 불교는 더욱더 사회 안정을 위한 노력을 쉬지 않을 것이라 기대해 본다.

타이완-이상미 통신문



자제공덕회의 증엄 스님.



법고산중대선사의 성엄 스님.